

# ‘따사로운 햇살 · 신선한 바람’ 가을을 벗 삼아 걸어보자

그곳에 사람이 몰린다.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저 칙칙한 벽과 평범한 길바닥에 알록달록한 색깔로 양중맞은 그림을 그려놓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미술이다. 황량하고 쓸쓸했던 골목길이 이내 생동감 넘치는 길이 돼버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청수)는 따사로운 햇살과 신선한 바람이 양상미를 이루는 10월을 맞아 '벽화마을' 따라 훌쩍 떠나는 가을 걷기 길을 아홉 곳을 꼽았다. 다만 벽화마을은 테마파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터전임을 잊지 말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할리우드 영화 '킹스맨' (감독 매슈 본)은 이번 2편에서도 외치고 있다.

문체부, 관광공사가 매월 선정하는 추천길은 '걷기여행길 종합안내포탈'(http://www.koreatrails.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중구 골목 투어 4코스 삼덕 봉산 문화길(대구 중구)

중구 골목 투어는 원도심인 중구의 근대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골목길이다. 동네와 동네를 싹뚫처럼 이어주는 골목에서는 대구의 잊힌 역사, 사람 사는 이야기가 도란도란 들려온다. 그중 4코스 삼덕 봉산 문화길은 역사와 예술이 숨 쉬는 길이다. 죽목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영화로 최근 다시 주목받는 가수 김광석의 기리는 김광석길과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 방천시장 봉산문화거리, 건물바위 등을 두루 둘러보자.

◇ 경로 :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삼덕동 문화거리~방천시장~김광석길~봉산문화거리~대구향교~건물바위  
◇ 거리 4.95km, 소요 2시간50분, 난이도 보통,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 053-661-2624



■ 바우길 5코스 바다 호숫길(강원 강릉시)

바우길 5코스 바다호숫길은 강릉이 자랑하는 경포호와 4km에 걸쳐 이어지는 해송숲길의 정신향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여기에 커피 향 그윽한 안목해변과 금강소나무 숲길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용률이나 만족도 면에서 모두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이 길을 걷는다면 안목항 버스 타는 그림 골목을 지나치지 말자. 이 노선 북쪽 끝인 사천진항은 강릉을

'물회'의 고장으로 알려진 진원지다. 물회 전문 식당이 여럿 있는데 어디든 기본 이상의 맛을 자랑한다.

◇ 경로 : 사천 해변공원~경포 인공폭포~경포대~허난설헌 기념관~강문 해변~송정 해변 유펜터~강릉항(죽도봉)~솔바탕 다리~남항진  
◇ 거리 16km, 소요 6시간, 난이도 쉬움, 강릉시 관광과 033-640-5126



■ 인천둘레길 11코스(인천 중구)

인천둘레길 11코스에는 '연탄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하얀 연탄이 가득 쌓였던 어린 시절 그 골목길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좁은 골목길, 가파르고 미로 같은 달동네 등 언젠가는 기억 저편에나 남을 것들을 아직 눈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의 몇 안 되는 곳이다.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은 앞서 2005년 전국 최초로 오픈한 달동네 박물관이다. 달동네 주민들의 기증품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마을 일부를 옛모습 그대로 재현했다. 그간 세상에 치이며 너무 지쳤다면 이 길을 걸으며 꿈 많은 어린 시절을 추억해 기운을 차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 경로 : 도원역~우개로 문화마을~인천세무서~금창동 주민센터~창영초등학교~배다리 현충방 거리~송현 근린공원~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동인천역  
◇ 거리 5.2km, 소요 1시간30분, 난이도 어려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032-433-2122

■ 마비정 누리길 1~3코스(대구 달성군)

마비와 백회리는 두 마리 말의 가슴 시린 사랑 전설이 깃든 마비정 누리길에는 마비정 벽화마을을 기점으로 삼필봉·가창 정대리·화원 자연휴양림을 각각 종점으로 하는 걷기 코스 3개가 있다. 길 중심 마비정 벽화마을은 1960~1970년대 농촌 풍경과 시대 분위기를 토담과 벽담을 활용해 벽화로 표현한다. 마을에는 국내 유일 연리목+연리지 사랑나무가 있다.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하니 재미 삼아 해보자.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길

◇ 1코스 마비정 벽화마을~삼필봉, 거리 1.5km, 소요 30분, 난이도 보통 ◇ 2코스(마비정 벽화마을~가창 정대리), 거리 5.5km, 소요 2시간30분, 난이도 어려움, ◇ 3코스(마비정 벽화마을~화원자연휴양림) 거리 1.4km, 소요 25분, 난이도 쉬움, 달성군청 관광과 053-668-3913

■ 느린꼬부랑길 1코스 옛이야기길(충남 예산군)

느린꼬부랑길은 국내 여섯 번째 '슬로시티'인 예산군 대흥면 곳곳을 누비는 길이다. 대흥면은 '의종은 형제' 이야기가 유래한 곳으로 역사와 전통, 자연 생태가 숨 쉬는 고장이다. 느린꼬부랑길 1코스 옛이야기길은 의종은 형제 공원 내 방문자센터에서 시작해 되 돌아오게 된다. 시골 마을의 소소한 풍경과 소박한 벽화, 봉수산 중턱 자연휴양림에서 바라보는 예담저수지의 아름다운 풍광, 동헌의 고즈넉한 모습 등 대흥의 다양한 매력을 접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 경로 : 방문자 센터~관록재들~봉수산 자연휴양림~애기폭포~대흥 동헌~방문자 센터  
◇ 거리 5.1km, 소요 1시간30분, 난이도 보통, 대흥슬로시티 방문자센터 041-331-3727

■ 전주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1코스(전북 전주시)

도란도란 시나브로길은 전주 한옥마을 남쪽 전주한 벽문화관을 출발해 남고산성 너머 원당마을로 내려섰다. 전주천 목길을 따라 다시 한옥마을(전주향교)로 돌아오는 원점회귀형 걷기길이다. 골목마다 재미있는 벽화들이 숨어 있는 옥류마을, 지만마을은 이 길의 클라이맥스다. 특히 지만마을은 글로벌한 스토리들이 벽화로 그려져 골목마다 명화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5년 전 어느 화가가 남은 페인트를 재활용한 것이 계기가 돼 지금은 40호가 넘는 집 담벼락과 대문이 갤러리로 변했다.

◇ 경로 : 한옥마을(전통문화관)~남천교~산성벽화마을~관성묘~분기점~천경대~만경대~역경대~분기점~원당마을~전주천~전주교 성지~전주자연생태 박물관~한벽당~지만마을~오목대~향교  
◇ 거리 12km, 소요시간 3시간30분, 난이도 보통 전주시 문화관광 콜센터 063-222-1000

■ 우수영 강강술래길(전남 해남군)

임진왜란 당시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마치고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한 뒤, 전 세계 해전사에 영원히 남을 대승을 거둔 곳이 '회오리바다', 울돌목이다. 그 전투를 명랑대첩이라고 부른다. 우수영 강강술래길은 명랑대첩 현장인 울돌목과 조선 수군 본영이었던 진라 우수영을 잇는 길이다. 길음마다 충무공과 조선 수군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특히 우수영마을은 골목마다 벽화, 조형작품, 작은 갤러리 등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경로 : 울돌목 물살체험장~울돌목 해안데크~진라 우수영~강강술래대 정수관~우수영 유스호스텔~청룡산 유펜터 정자~충무사 연리지~충무사~우수영 해안데크~우수영항~법정스님 생가~방죽샘~명랑대첩비~우수영 5일장~망해루  
◇ 거리 7.3km, 소요 3시간, 난이도 보통,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061-530-5329, 관광안내 대표전화: 061-532-1330

■ 양림동 둘레길(광주 남구)

광주 양림동 둘레길은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과 함께 요즘 뜨는 도심 골목이다. 근대역사문화마을에서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들과 1930년대 풍경을 빌려 입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그 시절로 들어온 것 같다. 19세기 초 이곳에 지어 잡은 미국인 선교사들의 발자취도 고스란히 남겨졌다. 커뮤니티 센터 뒤 평촌마을에서 주민들이 그림과 장식으로 직접 꾸며놓은 골목을 누비다 보면 광주가 왜 '예향'이고 '비엔날레'의 고장인지 절로 알게 된다.

◇ 경로 : 양림동 커뮤니티 센터~광주 정공업지려와 충경상~이장우 가옥~최승효 가옥~뫼골동굴~양림파출소~양림정~통기타 거리~사직공원 산책로~충현원~다형 김현승 시비~선교사 묘원~우일선 선교사 사택~피터슨 선교사 사택~호랑가시나무~커티스 메모리얼 홀~3.1만세운동 기념동상~수피아홀~윈스브로우홀~푸른길~정음성 거리~정음성 생가~3.1만세운동 발상지~오원 기념각~어미는 기념관  
◇ 거리 4.5km, 소요 2~3시간, 난이도 쉬움, 광주 남구청 문화관광과 062-607-2331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